

현대의학에 대한 불신을 진단하다

강 석 하

과학중심의학연구원 원장
kangseokha@gmail.com



〈편집자 주〉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카페에서는 의학적 근거가 없는 엉터리 치료법을 소위 자연주의 치료라고 홍보하였다. 이 과정에서 ‘맘 닥터’라는 카페 내 활동가들을 양산했는데, 이 맘닥터들은 카페 내 ‘의료상담 게시판’에서 주로 활동하며 초보엄마들에게 근거 없는 엉터리 민간요법을 처방하는 등 불법으로 유사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마치 안아키 카페에서는 의사와 현대의학을 불신하는 것이 어떤 종교적 신앙처럼 확고해 보인다. 왜 그럴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를 고민해 보는 것에서 이 글은 출발한다.

사실 현대의학을 불신하고, 잘못된 정보에 현혹당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흡사 미디어가 쏟아내는 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현 시대에 역설적이게도 가짜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횡행하는 것처럼 매우 일반적인 문제라 볼 수 있다. 결국 가짜 건강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사람과 미디어 구조 등에 원인이 있다고 필자는 진단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거짓말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노력과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개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감시와 견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가짜를 배척하고 진짜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투자가 이어진다면, 또 다른 안아키는 자리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서론

우리나라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선망하는 대상은 인기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도 있겠지만 ‘의대생’도 빼놓을 수 없다. ‘의대생’이라는 신분은 최고 수준의 입시성적을 받았다는 사실(그리고 그에 필요한 높은 지능과 성실성)을 증명해주며, 졸업 후에 고소득과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리라는 기대까지 담겨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의대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해 의사면허를 따고, 대학병원에서 경력을 쌓고 나오면 오히려 신뢰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듯하다. 의사들을 믿지 말고 병원에 가지 말라며 현대의학과 의사들을 매도하는 **故허헌회**의 책들을 비롯해 그와 비슷한 부류의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아이들을 의사에게 맡기면 안 된다는 ‘안아키’가 유행을 한다. “의사들이 모르는” 혹은 “의사들이 감추는” 따위의 꼬리표를 단 엉터리 건강상식이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으로 퍼져나간다.

의사와 현대의학에 대한 불신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다. **故허헌회**의 말을 따라 ‘자연치유’를 고집하다 사망한 피해자나 안아키 한의사와 그 한의사에게 교육받은 ‘맘닥터’들의 말을 따라 자녀들에게 아동학대에 가까운 엉터리 치료행위를 했던 사회적으로 부각된 사례가 아니더라도, 의사들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어디서 엉뚱한 이야기를 주워듣고 따르다 상태가 악화되어 돌아온 환자들을 겪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자기 스스로 진단과 처방까지 다 내려놓고 진료실에 들어와서는 의사가 그제 아니라고 설명해주면 오히려 의사를 면박하는 환자들의 존재는 별로 특별하지도 않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의사와

현대의학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방구석에 앉아서도 전 세계 최신 의학 정보를 다 찾아볼 수 있는 시대에, 왜 환자들은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돈을 뜯어내는 엉터리 정보에 현혹되는 것일까?

본론

故허헌회가 쓴 <의사를 믿지 말아야 할 72가지 이유>와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 81가지 이유> 같은 책들은 출간 뒤 상당기간 건강의학 분야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여러 언론사와 방송사들도 그가 활동을 시작한 초기에 그의 책과 주장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뒷 표지만 읽어보아도 의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없는 사람의 헛소리라는 사실을 알기에 충분함에도, 우리나라의 미디어는 **故허헌회**의 위험한 주장을 확산시키는 도구가 되어 주었다. 프레시안은 <제약사-병원-의사, 그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에서 “‘현명한 의료쇼핑’ 정도의 소비자 정보 차원을 넘어, 제약-병원-의사의 ‘3각 동맹 체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풍부한 자료를 담고 있다.”고 찬양하기도 했다. **故허헌회**는 ‘약을 끊은 사람들’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기도 했는데 현대의학 치료를 거부한 환자들에게 치료방법을 지시하기도 했고, 초기유방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자신의 ‘자연치유’를 받게 하다가 숨지게 한 사건이 드러나기도 했다. 결국은 그 자신도 맹신의 늪에 빠져 50대 중반의 이른 나이에 사망했다.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의 줄임말인 ‘안아키’ 카페도 **故허헌회**와 같은 현대의학 불신의 연장선상에 있다. 안아키 사건이 파장이 컸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점

*) ‘약을 끊은 사람들’의 수정이자 자칭 의학전문작가. 2016년 7월 55세(주간동안 기준)의 젊은 나이로 사망했다. “언론인과 제약회사가 참고에 가득 쌓인 의약품을 팔기 위해 만든 질병이 에이즈다”, “대중을 상대로 공포분위기를 만들어 내는 데 써 먹는 바이러스 중 하나가 메르스 바이러스”라는 발언 등으로 주목받았다.

을 들 수 있다. 첫째는 피해자들이 영·유아라는 점, 둘째는 무자격자가 아닌 한의사에 의해 벌어졌다는 점에 서다. 카페 운영자인 김효진 한의사는 2006년에는 피부과한의학회 회장을 맡았으며,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자문위원을 역임할 정도로 명망 있는 한의사였다.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주로 피부질환 치료와 ‘해독생기요법’을 주제로 다양한 세미나와 보수교육 등을 맡았고 동영상 강좌도 한의사들에게 인기가 높았다고 한다. 그런 한의사를 신뢰한 안아키 회원들은 약을 대신해 숯가루나 김효진 한의사가 만든 한약을 사용했고,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김씨가 운영하던 한의원이나 안아키 제휴 한의원에서 ‘해독생기요법’이라는 관장치료를 시키기도 했다.

故허희회와 안아키 전에는 2006년 창설된 ‘안예모(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모임)’가 있었는데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이들은 백신 접종을 거부하며 각종 대체요법을 조장한다.

현대의학에 대한 불신과 거부는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다. 허희회의 책들과 비슷한 부류의 책들이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출판되고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소개되고 있었다. 그 중에는 2000년에 출판된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번역서가 있는데, 이 책의 원서는 1979년에 미국인 의사가 쓴 책이다. 출판 직후에 JAMA에는 “특수한 몇몇 사례들을 일반화시킨 엉터리 주장”이라는 취지의 거센 비판이 실렸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는 21년이 지난 뒤에 번역서가 나왔고, 그로부터 17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놀랍게도 이 책의 번역자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약정책과장을 맡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이다.

이런 현대의학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은 질병에 걸렸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어린 아이들의 백신 접종을 막으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되게 만든다. 세

현대의학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은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고, 어린 아이들의 백신 접종을 막으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되게 만든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전염병들이 백신접종 거부 운동의 확산으로 인해 되살아나고 있다.

계 여러 나라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전염병들이 백신 접종 거부 운동의 확산으로 인해 되살아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의학이 득세하고 있어서 다른 대체의학들의 유행은 덜한 편이다. 외국에서 한의학은 중국전통의학(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이라고 불리며 여러 대체의학 중 하나로 취급받고 있다. 한의학은 엄밀히 말하면 중국전통의학이고, 우리 고유의 것이라는 인식이 생긴 것은 최근의 일이다. 외국에서 한의학(Korean medicine)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한의사들도 외국에서 중의학 언급될 때 한의학이라고 소개한다. 우리나라는 한의사 제도가 있어서 대체의학의 일종인 한의학이 마치 현대의학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것처럼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의사들이 하는 일은 외국에서는 침술사나 약초사 정도의 지위를 갖는데, 한의사들은 의사들을 ‘양의사’라고 불러서 대등한 구도로 비춰지도록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유달리 비과학적인 것은 아니다. 현대의학에 거부감을 갖거나 과학 바깥의 영역에서 치료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계 어디에나 있고,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도 어디에나 있다.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과 동종요법(homeopathy)은 서양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으며, आयुर्वेद(Ayurveda), 영적치유(spiritual healing), 레이키(reiki, 靈氣), 정골요법(osteopathy), 자연요법



(naturopathy), 두개천골요법(craniosacral therapy), 거슨요법(Gerson therapy) 등 수많은 대체요법들이 지역에 따라 유행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말리, 세네갈, 우간다 등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전통요법사들과 의사들과의 협진이 강조되고 있다.

대체의학을 선호하고 현대의학을 불신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거대 자본', 제약회사, 의사들의 탐욕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체의학이 야말로 큰 돈벌이가 되는 영역이며, 현대의학과는 달리 검증과 규제가 없어서 효과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현대의학에 대한 음모론자들은 이상하게도 대체의학이나 선동꾼들에게는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

세계 최초의 대체의학 검증 교수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영국 엑스터대학의 에드워드 에른스트 명예교수는 각종 대체의학에 대한 수십 건의 임상시험과 체계적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등 1천편이 넘는 논문을 출판했다. 그런데 그가 벌이는 연구들마다 사람들이 효과가 있다고 믿고 널리 사용되던 치료법들이 실제로는 위약효과 이상의 효과가 없다는 진실을 드러내게 되었고, 평생을 대체의학의 지지자들과 종사자들에게 시달려야 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 인생을 기록한 회고록 <이상한 나라의 의학자>를 출판했는데 열정적인 연구와 뛰어난 성과로 학계에서 인정받은 화려한 이면에 있었던 어두운 면들, 대체의학 종사자로부터의 시달림과 특히 대체의학을 열성적으로 지지하고 대체의약 사업을 펼치는 영국 찰스 왕세자의 압력으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연구실을 떠

대체의학은 비용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고, 제대로 진단받을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 특히, 거의 대부분이 위약효과 이상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살 수 있는 환자들을 죽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이다.

나게 된 사연을 고백하기도 했다.

적절한 치료 없이도 저절로 낫는 질환이나 통증이나 메스꺼움 같은 주관적인 증상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없다면 순전히 위약효과밖에 없는 대체의학 치료법도 나쁘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체의학은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고, 제대로 진단받을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한 약은 효과 문제를 떠나서 비싸기도 하고, 심각한 질환 인줄 모르고 한의원에서 한약을 먹고 침을 맞다가 상태가 나빠진 뒤에야 의사를 찾는 환자들도 부지기수다.

대체의학의 가장 큰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위약효과 이상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살 수 있는 환자들을 죽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 예일대 연구팀은 미국인 암환자들의 정보를 이용해 대체의학과 현대의학의 치료성적을 비교한 연구결과를 *Journal of the National Cancer Institute*에 발표했다. 현대의학적 치료를 거부하고 대체의학을 선택한 환자들은 현대의학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 비해서 사망위험이 2.5배나 높았다. 아마 추측한 기간이 길었다면 사망률의 차이는 더 벌어졌을 것이다. 작년 캐나다에서는 19개월 된 아들이 뇌수막염에 걸리자 약초 치료를 고집하다 숨지게 한 부모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도 있었다. 게다가 이 아기는 12개월 때 접종받았어야 할 백신을 부모가 거부하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뇌수막염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다.

결론

현대 의학을 불신하고, 잘못된 정보에 현혹당하고, 영터리 치료법에 매달리는 일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세계 어디서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해결이 쉽지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

문제의 원인이 현대의학 자체나 의사들에게 있을

까? 현대의학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의사들 중에서도 부도덕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문제의 근원은 아니다. 최근 논란이 된 사드(THAAD)의 경우를 보자. 사드를 설치하면 지역 주민들이 전자파에 튀겨진다거나, 엄청난 소음에 시달리게 된다는 유언비어가 널리 퍼졌었다. 하지만 괴담의 원인은 사드 자체에 있지 않았다. 단지 허위사실을 퍼트린 선동꾼들이 문제의 근원이다. 또 다른 예로 진화론이 있다. 생물학자들에게 모든 생물이 하나의 공통 조상에서 진화해서 갈라져 나왔음은 가설이나 이론이 아닌 명백한 사실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생물의 이름을 붙이고 분류하는 학문인 계통분류학의 목표는 모든 생물들 간의 진화적 관계를 밝히고 그에 맞추어 분류하는 일로, 생물이 공통조상에서 진화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출발한다. 그 외에도 다양한 생물학 분야에서 진화는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비전문가들은 생물학자들과는 달리 생물이 진화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이것은 ‘창조과학자’ 같은 사기꾼들 탓이지, 생물학의 결함이나 생물학자들의 잘못 때문은 아니다.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진실과 대중 사이에서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허현회와 안아기를 겪었지만 여전히 방송과 언론에는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거짓말쟁이들이 환대받는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의사나 교수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 해결을 복잡하게 만든다. 이들이 축출되지 않는 한 제 2, 제3의 안아기 사태는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의사들이 읽는 논문을 받아보고,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의대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진실은 가까이 놓여있지만,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되지 않는다. 안아기나 안예모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영터리 정보만을 주워 담으면서도 스스로는 자신들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은 진실과 대중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일이다.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진실과 대중 사이에서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사람들에게 있다. 허현회와 안아기를 겪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거짓말쟁이들이 환대받는다. 이들 중에는 의사나 교수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 해결을 복잡하게 만든다.

의사나 과학자 같은 전문가들의 힘만으로 고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 해결에는 전문가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거짓말쟁이들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은 전문가들만이 가지고 있고, 거짓말을 반박하고 바로잡을 능력 또한 전문가들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에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고 자칫하다가는 에른스트 교수가 겪었던 것처럼 자신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선의만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정부나 재단이 나설 필요가 있다. 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가는 정보들에 대해 전문가의 감시와 견제가 도입되게 하고, 진실을 원하는 대중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다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또 한의학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 의사와 달리 한의사들은 과학적 원리나 임상시험을 통한 근거 따위에 개의치 않고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며 심지어 영터리 지식으로 대중들을 교육시킨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에서 한의사를 육성하고 정부에서 한의사제도를 두고 있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다. 안아기 운영자가 한의사가 아니었다면 규모가 그만큼 커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한의사 제도라는 거대 악부터 해결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방건강증진사업’ 따위가 아니다. 근거중심의학과 과학중심의학을 바로 세우고, 영터리 정보와 사이버의료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국민들에게 교육해야 한다.

